

## 반려견 등록 스타트업 ‘페오핏’ 중구난방 법 해석에 앞길 막혀

광진구 “법 해석 때까지 업무 중지”  
농식품부·서울시 “우리 소관 아냐”

광진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법 해석을 떠넘기며 애꿎은 스타트업인 페오핏의 업무를 막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반려동물 등록 스타트업 페오핏은 반려동물 등록 업무를 함께 진행하던 광진구로부터 동물등록업무 중지 통보를 받아 해당 지자체와 등록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페오핏은 지난 2월부터 광진구에 등록대행업자 신고·등록 후 324건의 동물등록 업무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지난달 28일 돌연 반려동물 등록업무 중지를 통보했고, 지난 14일 등록업무 중지 공문을 보냈다. 등록업무 중지 사유는 ▲등록대상 동물과 대면 과정 부재 ▲무선 식별 장치와 인 식표 부착 확인 과정 부재 ▲객관적인 신청인(신고인) 인적사항 ▲등록대상 동물 신청 내용 확인 불가능 등이다.

광진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의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해석이 있을 때까지 등록업무를 중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내부 검토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개의 체내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또는 등록 인 식표를 부착하는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페오핏은 지금까지 고객이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신청 하면 관할 구청의 승인을 받은 인 식표를 고객에게 배송 한 뒤 반려동물이 무선 식별 장치 또는 인 식표를 착용한 사진을 찍어 올리

면 동물등록번호를 신청해 발급받았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2항에 따른 것이다. 페오핏은 지금까지 광진구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부터 강남구를 통해 등록업무를 진행해 약 5000여 건의 동물등록 업무를 완료했다. 또다른 온라인 동물등록 업체인 플래너티리헬스도 지난해 10월부터 강남구를 통해 온라인 동물등록 업무를 진행했다.

페오핏 측은 광진구의 이런 결정이 온라인을 이용한 등록대행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한다.

상급기관의 법해석을 받겠다는 광진구의 주장과 달리 농림부와 서울시는 이것이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설명한다. 동물등록은 지자체장 고유의 업무라는 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 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사무가 아니다”며 “인 식표 착용 확인 후 동물등록번호 발급 과정의 선후관계에 대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8조 2항에 대한 개정 요청이 있었기에 담당 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예정은 있다”고 했다. 그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식별장치 장착 후 동물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만 따르면 되지 꼭 동물을 데리고 가서 대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지금까지 페오핏이 동물이 인 식표를 착용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법률 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청장이 이런 업무를 행함에 앞서서 법의 해석이 맞는지 등은 구에서 확인할 일이지 대면을 해야 한다는 등 사안별 디테일한 건을 서울시에서 해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 경동나비엔, 울릉도서 보일러 사전점검

독도경비대 중형보일러도 함께 실시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수리를 위해 울릉도로 달려갔다. 경동나비엔은 울릉도에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보일러 사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울릉도 지역 보일러사전점검 서비스는 경동보일러가 업계 처음이다.

점검 기간 동안 경동나비엔 보일러를 사용하는 울릉도 주민들은 ▲보일러 연 결 부위 ▲보일러실 점검뿐 아니라 동결 예방 조치 등 다양한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만원 이상의 주요 부품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독도에 설치돼 있는 중형 보일러 사전 점검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경동나비엔은 지난 12일부터 울릉도 지역에서 보일러 사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 고객이 보일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 페르소나, ‘중소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개발

# 중소 궁금증, 카톡에 물어보세요

중기부 지원포털 ‘기업마당’ 연결  
최신 지원사업 등 쉽게 조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챗봇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페르소나와 함께 카카오톡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준철 페르소나 대표는 인력과 정보검색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중기부의 도움을 받아 카카오톡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개발했다. 2018년 말 개발을 완료한 챗봇은 지난 5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은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시스템에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 ‘기업마당’을 연결한 것이다. 기업마당은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정책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지원사업 공고, 정책 뉴스,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배준철 대표는 기업마당에서 제공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 중인 분야별(창



챗봇 시작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모바일 상세 화면

업, 인력, 연구·개발(R&D) 등) 최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친구로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몇 번의 클릭으로 기관별, 분야별로 접속 중인 최신 지원

사업 정보 개요(사업명, 신청 기간)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상세 사업내용은 기업마당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하여 확인한다.

배준철 대표는 “기업마당 지원사업 데이터는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정보를 검색할 때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한다”며 “관심사업 등록, 개인화 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올해 12월 중에는 더욱 개선된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정식 서비스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개발은 정부 혁신과제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발맞춰 지원사업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홍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페르소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데이터 제공 항목 확대, 검색기능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사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마당 및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 카페24 ‘레시피’로 더 쉬운 쇼핑몰 운영

온라인쇼핑몰 업무 자동화 서비스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쇼핑몰 업무 자동화 서비스 ‘레시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레시피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자동화할 수 있어 IT 전문가 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문관리나 상품관리 등 중요도는 높지만, 반복적인 업무들을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고, 운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품 품절 시 품질 이미지 자동 노

출, 반품 신청 접수 시 SMS 알림 수신, 삭제 상품 복구 시 상품정보 자동 세팅 등 사람이 수시로 확인하거나 수동으로 설정해야 하는 여러 업무를 자동화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밖에 고객 및 주문 관리, 상품분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자동화 적용이 가능하다.

레시피 서비스는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과의 연동도 가능하다. 구글 시트, 텔레그램 등 외부 프로그램은 물론 카페24 앱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들과 API 연동을 통해 업무 자동화도 할 수 있다.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는 “쇼핑몰 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업



카페24가 17일 쇼핑몰 업무 자동화 서비스 ‘레시피’를 출시했다. /카페24

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쇼핑몰 운영자들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넘어 고객 만족을 통한 매출 증대와 비즈니스 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 LG하우시스, 참전용사 자택 개보수 공사

‘호국보훈의 달’ 주거환경 개선 지원

LG하우시스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

LG하우시스는 17일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위치한 6·25 참전용사 박원용 자택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이동석 제37사단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LG하우시스 민경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육군본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민간 기업이 이를 후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참전용사는 6·25전쟁 당시 제7보병사단 5연대 소속으로 양구지구 전투 등에 참전한 박원용(90세)옹이다.

박원용옹의 기존 주택은 지은 지 40여년이 지나 단열이 매우 안 좋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환경이 열악해 LG하우시스와 제37보병사단의 지원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LG하우시스는 자택 신축에 필요한 창호, 바닥재, 벽지 등 자재를 지원하고 제37보병사단은 공병대대 인력과 장비를 투입, 지난 5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해 최근 자택 신축 공사를 마쳤다.

지난해에도 LG하우시스와 제37보병사단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용



17일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6·25참전용사 박원용 자택에서 열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모습. (왼쪽부터) 조용기 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이동석 제37사단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박원용, LG하우시스 민경집 대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 2명을 선정해 자택 개보수 공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양 측은 지난해 ‘1사1병영’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